

A Daily Bread

Date: 30 Av 5786 (August 13, 2026)

Torah Portion: Shoftim

Topic: 왕과 슈므엘(사무엘), 2 부

그렇다고 해서 장로들이 한 말이 모두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그들의 우려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삼상 8:3)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들에 대해 거짓 비난을 지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지도자의 아들들의 상황을 알리고 지도 체제의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주목할 점은,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제를 여호와(YHWH) 앞에 가져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요청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대응 방식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음에도 기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희노 애락의 즉흥적 감성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사사는 장로와 백성이 벌여 놓은 이스라엘 민족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여호와께 가져다 올려 드렸고, 여호와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자신에게 드러내 알려주시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거부로 느꼈던 장로들과 백성들의 언행들은, 더 깊은 영적세계에서 뿌리를 둔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또한 백성의 행동을 이스라엘의 더 큰 역사적 맥락 안에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사무엘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쁘라임(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곧나를 버리고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앙헤림/ 다른 신들)을 섬긴 일과 같이 그들이 너에게도 행하고 있도다"(삼상 8:8).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서 반복적으로 겪으셨던 일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쁘라임에서 구원받은 직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자신들 앞에 설수 있으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 세대가 지난 후, 그들은 다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즉,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 줄"(삼상 8:20) 눈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금송아지와 인간적인 왕을 세우려고 요구하는 일은 미묘한 영적 위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시대를 나란히 병렬하여 조명할 경우에 그 두 세대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안에서 찾아야 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 그 자체가 악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모웨나 사무엘 자신들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발상 시점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있는 통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왕에 대한 의존력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과 이에 따르는 언행의 구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토라는 통로로 쓰시는 인간의 지도력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토라는 땅의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인 사사, 장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을 바르게 세우는 신성하고 완전한 삶의 제도를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름의 백성과 종과 자녀들에게는 부어 주시는 모든 권위는 경외-충정-순종이라는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야, 여호와와 절대적 권위 아래에서 영속적인 권위와, 생명인 복과, 은총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왕이 왕관을 쓸 수는 있어도, 여호와와 토라는 그 왕관보다 더 높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의 핵심 교훈은 단순히 왕정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의도와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장로들의 우려가 타당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빙토라 성회를 이루어 나가는 말씀 공동체 가운데 타당한 우려가 성경 본문과 같이 생기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려가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고안해 낸 모든 해결책이 토라의 기준을 넘어서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서도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조급함, 교만의 영, 혹은 주변에 드러나 보이는 유행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을 모방하려는 세속 욕망의 영이, 그것을 응시하는 사람의 마음에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사사께서는 말세를 지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바르고, 더 나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영적-감정적-물리적인 각 세계의 층 마다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존전에 우선적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을 통하여 최종적인 해결책을 도모하기 전에 여호와와 הָרֹחַ הַקֹּדֶשׁ (루아흐 에이짜 ; ruach etsyah) 곧, 모락의 신께 그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사. 11:2)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전, 그분의 토라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다시 정검하고 비추어 보며, 무엇이 옳은지를 의뢰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거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실용적일 것인가?"가 아닙니다.

더 깊은 핵심 질문은,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왕은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와 토라에 명하신 말씀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 지도력, 제도, 계획 등은 모두 제각기의 세계에서 적절한 자리가 있겠지만, 그 어떤 권위나 권능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엘로힘(권능자)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의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8장의 토라 곧 교훈은 어느 한 시대를 초월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미 내린 선택에 대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여호와 권능자를 의뢰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이 그분의 토라-말씀-뜻, 신성한 가르침에 근거하며 한 발자국씩 따라 가며, 영생의 말씀이 각 육신에서 이루어지도록 온 정성과 힘을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샬롬

"천지가 여호와와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아도나이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시.119:19)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호와와 종을 찾으소서 내가 아도나이의 계명들을 잊지아니함이니이다." (시.119:176)

"예호슈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 15:24)

"에브라임[북 이스라엘 10 지파]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예후다[남 유다 2 지파]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예후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아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예후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지라 내가 탈취하여 잡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 5:11-15)